

지역 메아리

최동원 완주부시장, 재선 도전

제7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 중인 최동원(57) 의원이 6·13 지선 완주군 기초의원(나선거구 상관·소양·구이) 재선도전을 선언했다.



최 부의장은 23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물심안면으로 성원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발로 뛰어서 희망이 있는 완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한 일의 밑거름이 되는 의원,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의장은 또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시간상 너무 짧아 미진한 부분이 아쉽다. 이를 마무리하고 반드시 관찰시키기 위해 이번 6·13지선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를 위해 최 부의장은 ▲소양면 조경수 유통단지사업 연내 완공 ▲곡도 26호선 면소재지 진입도로 개설 추진 ▲상관공기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편백숲 진입도로 확충 ▲술테마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 ▲구이 수상레포츠 공원 사업 추진 등 공약을 발표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 장애인복지관, 가족 운동회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강정완)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김제 장애인체육관 강당에서 제6회 하하호호 가족명랑 운동회를 열었다.

이번 운동회는 복지관 이용아동과 형제 및 가족 1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다채로운 놀이와 운동을 하며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 및 끈끈함을 느끼는 자리가 됐다.

올해 6회제를 맞이하는 명랑운동회는 개회식 후 몸 풀기를 통한 친선경기, 댄스대회, 풍선제공, 경품추첨, 폐회식 등 5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교원동 맞춤형결사 봉사활동 실천

김제시 교원동 우리동네 맞춤형결사는 23일 9시 복지기동대원을 비롯한 복지동장님들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독거노인, 장애인세대를 방문하여 노후화된 전선 및 전등을 교체하는 등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살전에 구슬땀을 흘렸다.

우리동네맞춤결사는 지난 3월에 발족하여 매월 2차례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기동대원들의 참여 열기가 갈수록 뜨겁고 지역주민들의 칭찬도 자자해지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부정책 선제대응 총력

완주군, 대응보고회... 과제 발굴·향후 추진 방향 논의

완주군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완주군은 23일 박성일 군수주재로 부서별 정부정책 분석 및 대응보고회를 갖고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 과제 발굴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표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금융운용계획안 발표,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 범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수립, 혁신도시 시즌2 본격 시동,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국 수준 강화 5개 주요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부서별 국가예산 사업의 발굴 및 정부 투자방향에 맞춘 사업내용 재구성, 정부 정책방향에 맞춘 군 정책 연계방안 등 29개 대응과제를 발굴하고 향후 정부정책과 연계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사



완주군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회적경제·공유경제 활성화 △혁신도시 2.0 실행전략 △로컬푸드3.0 후속사업 △지역특화관광 △산림바이오 매스활용 등 완주군의 미래성장 동력 사업이 될 수 있는 과제를 다수 발굴

했다. 완주군은 논의된 과제에 대해서 세부 논리 개발 및 사업내용 구체화를 지속 추진해 간다는 방침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산업기반 단지 구축

수확작업기 구입·가공공장 설립... 잡곡 생산기반 구축

완주군이 2018년, 2019년까지 2년에 걸쳐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친환경잡곡 생산, 가공, 유통 등의 산업기반 단지구축사업을 시작한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잡곡 생산의 가장 큰 난점은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잡초방제와 수확작업, 그리고 가공공장의 부재로 인한 가공작업의 어려움이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산업기반 단지 구축사업으로 수확작업기 구입과 가공공장을 설립해 그동안 잡곡 생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던 문제점을 해소해 잡곡 생산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기호 변화와 웰빙식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잡곡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이 낮고 기계화

율이 떨어지는 잡곡 생산체계로 인해 잡곡은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 완주군이 친환경잡곡 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잡곡생산단지는 기존의 광역친환경 단지가 조성돼 있는 고산면과 인근 이서지역을 묶어 친환경잡곡 생산의 주산단지로 선정하고 명실상부한 친환경 잡곡 생산단지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금산면 - IX, 봉사활동 진행 '눈길'

김제시 금산면(면장 김민완)에서 지난 22일 I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금산면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IX와 김제시 금산면 거야마을(이장 이도영)이 1시간 자매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지역민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거야·양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방 의료 봉사 및 이·미용 봉

사, 가운 써 주기 등이 추진됐다. 한의사와 원광대 간호학과, 동덕여대 미용보건학과 학생 등이 함께 하는 전문 의료봉사단체(사)햇살마루(대표 엄경희)가 연계 추진하는 이번 봉사활동은 30여명이 참여해 침술, 뜸, 부항, 온열치료 등의 한방 진료를 무료로 진행했다.

그동안 IX는 지난 2014년부터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 협업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국민연금공단, 한국전

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봉사단을 꾸려 김제시 금산면 거야마을을 방문, 오디 열매 채취 등 농번기 일손 돕기, 무료 법률상담, 무상전기시설 점검 등의 봉사활동과 생필품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김민완 금산면장은 "이번 IX의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활력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각종 기관 단체와 금산면의 연계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청년키움식당' 현판식

10개팀, 1년간 각 기간별로 식당 운영

완주군에 청년들이 운영하는 '청년키움식당'이 문을 열었다.

23일 이서면 오공로 21-5에 새롭게 문을 연 청년키움식당은 완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외식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외식업설비가 갖춰진 사업장에서 창업계획, 매장운영 등의 실전경험을 쌓아 역량을 키우고 나아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외식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공간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김장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처장 등이 참석해 청년키움식당의 첫 발을 축하했다.

완주군은 그동안 외식창업인큐베이팅 추진단을 운영해 총 10팀의 참가팀을 모집했다.

메뉴개발, 경영, 회계, 구매 등 외식창업에 필요한 전문가를 운영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참가팀들에게 집합교육과 개별 컨설팅을 진행했다.

개소식을 기점으로 10개팀 총 38명의 청년들은 1년간 각 기간별로 청년키움식당을 운영하게 된다.

첫 번째 참가팀은 일면식당(박수연 외4)으로 '로컬을 매일 후루룩'이라는 타이틀로 두 달간 식당을 맡는다.

이들은 로컬푸드를 활용해 직접 개발한 △두부 까르보나라 △홍시 간장볶음면 △한우 육개장갈국수 △매콤 닭고기볶음면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며, 영업문의는 전화 227-2018로 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 사업 선정

완주군이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선정됐다.

완주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독서진흥과 인문정신 문화를 확산하는 강연프로그램 운영에 선정됐다 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완주군은 2018 인문독서아카데미를 '예술에 인문을 담다'를 주제로 내달 3일부터 9월 20일까지(총 15회) 오후 7시, 완주군립 중앙도서관(3층강당)에서 운영한다.

내달 3일 첫 개최되는 인문독서아카데미는 '7년의 밤', '췌', '종이귀원' 등 소설로 유명한 정유정 작가가 강연자로 나선다.

정 작가는 '이야기는 삶에 대한 은

유다'를 주제로 모든 이야기가 삶에 대한 은유이자 인간을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고 삶과 세계를 한계 없이 은유해 낼 수 있는 장르가 문학임을 강연한다.

10일에는 권오준 생태동화작가, 24일 고희숙 화가, 29일 윤의식 건축학과 교수, 6월 5일 류승민 문화재감정위원 등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오인석 완주군 문화예술과장은 "2018 책의 해를 맞이하여 책을 함께 읽고 소통하는 인문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문독서아카데미를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양질의 국가공모사업 발굴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감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